

중학생의 성별과 신체상에 따른 체육개념 및 체육목표의 차이

이정흔¹, 이동진¹, 서재하¹, 이문숙¹, 오병돈¹, 조민행², 조병준^{3*}
¹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²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³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Differences in the concepts and objectives of physical education by the body image and gender of middle school students

Jeong-Heun Lee¹, Dong-Jin Lee¹, Jae-Ha Seo¹, Moon-Suck Lee¹, Byoung-Don Oh¹,
Min-Haeng Cho² and Byung-Jun Cho^{3*}

¹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Daegu University

³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중학생의 성별 및 신체상에 따른 체육목표 및 체육개념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는 것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층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남학생 267명, 여학생 166명 등의 총 443명을 표집하였다. 연구목적 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Figure Rating Scale(FRS)과 체육목표 및 개념에 관한 설문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PC 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체육개념 및 목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신체상에 따른 체육개념 및 체육목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첫째, 중학생의 체육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인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정상 체형의 중학생이 다른 체형의 중학생에 비해 체육개념과 목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올바른 신체상과 건강한 체형을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여학생에게도 체육개념과 체육목표를 경험으로서, 문화재생산으로서, 교과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의 범위와 계열 및 계획된 수업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levels of goals and concepts of physical education by the body image and gender of middle school students. Among 461 middle students randomly selected by a multistaged cluster sampling technique, 433 students(boys 267, girls 166) filled out questionnaires consisted of Figure Rating Scale and modified ones. To know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levels of goal and concept of physical education by sex, t-test was utilized. In order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levels of goal and concept of physical education by body image, ANOVA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Windows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boys had higher level of goal and concept of physical education than girls. Second, middle school students classified into normal body image was higher level of goal and concept of physical education that other body images such as very thin, thin, very obese, and obese o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focused on fragmentation of health, psychomotor, cognitive, affective, leisure, holistic human should make girls understand thoroughly and deeply goals and concepts of physical education and ideal body image

Key Words : Body image, Physical Education Concept, Physical education Objective

이 논문은 2009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조병준(Cho6451@gmail.com)

접수일 10년 10월 05일

수정일 (1차 10년 11월 16일, 2차 10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10년 12월 17일

1. 서론

신체상은 개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하는 신체모습에 대한 영상이다[22]. 이러한 신체상은 사회적 및 문화적 기준에 의해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24].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은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행동에 직결되어 있으며, 왜곡된 신체상은 자기 존중감을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25].

개인의 건강한 신체상을 제대로 규명 및 이해하지 못해 파생되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특히 중학생의 올바른 신체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특히, 학생에게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체육수업의 왕성한 신체활동, 운동,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기의 올바른 신체상을 경험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육과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체육목표도 새롭게 규정된다. 이광섭, 안용규[14]는 체육목표는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했으며, 이병관[15]은 국가적, 사회적, 시대적, 철학적, 요구에 의하여 지속적인 변천을 거쳐 오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체육의 개념과 목표는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화 과정 속에서 시대적 및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노력을 하지만 개념과 목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학교 체육의 목표는 학교 체육의 기점이자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7]. 또한 체육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복지적 측면에서 체육이 이해되는 등 체육자체가 목적적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체육활동을 통한 목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2]. 이와 같은 체육의 개념에 대한 공통적 견해는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 운동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인간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체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체육의 목표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또는 시대적,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해 왔다. 20세기 이후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체육의 목표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체육의 가치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발한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각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발달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의 건강한 구성원을 양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3,5,11,7].

개정된 제7차 체육과교육과정은 신체활동 가치에 따

른 내용의 개념 틀로 신체활동가치의 기초, 심화교육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학교의 체육목표를 건강 가치, 도전 가치, 경쟁 가치, 표현 가치와 여가 가치 목표 영역으로 세분화 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여가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여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운동 능력을 터득하며, 여러 가지 유형의 여가 스포츠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즉 청소년 시기에 적합한 여가 스포츠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여가선용의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중학생에게 제시한 체육과 교육 목표 및 체육개념은 일방적인 지시사항이 아닌 학생이 공유 및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중학생이 신체활동을 통한 궁극적인 여가 가치를 추구하는 등 설정된 건강 가치, 도전 가치, 경쟁 가치, 표현 가치 등의 세분화된 체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체육개념과 체육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체육개념과 체육목표와 관련한 주제는 연구자들의 관심사항이 되어왔다. 연구자들이 수행한 주제의 범위는 크게 체육목표 순위설정과 관련한 연구[2,4,9], 체육목표 인식에 관한 연구[7,12,13]들이 수행되어 왔다. 더구나, 체육개념과 체육목표의 연구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연구자들의 관심 연구 주제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연구자들에 의해 체육과 교육과정의 체육목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정 및 보완된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관련 연구가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심은 개정된 직후의 한시적 시기에 치중되어 있어 지속성과 연계성이 결여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체육과 교육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체육개념과 체육목표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수요에 의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성과 다양한 접근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성별과 신체상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체육개념 및 체육목표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설문 연구대상은 K도의 남, 여 중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층집락무선

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275명, 여학생 186명 등 461명 이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43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2 검사 항목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 중 체육목표에 관련된 설문지는 개정된 제7차 체육과교육과정의 내용체계영역의 5개의 신체활동의 가치영역인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의 대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중등학교 체육과 교육목표를 활용하여 이 연구에 맞게 5개 영역으로 건강활동 3문항, 도전활동 3문항, 경쟁활동 3문항, 표현활동 3문항, 여가활동 3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School type	Sex	N	Grade	Total
Private	Male	101	1	30
			2	36
			3	35
	Female	96	1	29
			2	32
			3	35
Public	Male	166	1	47
			2	57
			3	62
	Female	70	1	25
			2	29
			3	16

중학교 학생들의 체육개념 적용에 관한 측정문항은 Bookwalter[21]가 사용한 체육인문학 수준 설문지와 권옥동 등[2]의 체육목표 순위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체육개념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연구한 박민수[9]의 제7차 교육과정의 체육목표 순위설정과 적용에 관한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철학적 수준 3문항, 사회학적 수준 3문항, 생물학적 수준 4문항, 교육학적 수준 4문항으로 총 14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 체육교사 2명과 연구자 3명이 용어의 적절성과 타당도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중학생의 신체상을 알아보기 위해 Stunkard, Sorenson, Schlusinger[27], Bhuiyan 등[20]이 사용한 체형그림 (figure rating scale, FRS)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녀

별로 각각 매우 마른 체형에서부터 매우 뚱뚱한 체형까지 크기 순서대로 9가지 체형의 그림이 한 장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각 체형의 그림 아래에는 1-9 단계의 척도가 제시되었다. 9가지의 체형 그림과 각각의 그림에 대한 척도가 제시된 그림 중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현재 자신의 체형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선택하여 그 번호를 기록하게 하였다.

FRS에 제시된 그림 중 1-2에 해당하는 그림을 매우마름, 3-4의 그림을 마름, 5의 그림은 정상, 6-7의 그림은 비만, 8-9의 그림은 매우비만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4주간 5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남녀 척도 모두 .70 이상의 계수를 보였다.

[표 2] 설문지지의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Variable	Classification	N	Chronbach's α
characteristics	Sex, Somatotype	2	
	Competition	3	.793
Goal of physical education	Health	3	.893
	Leisure	3	.762
	Representation	3	.845
Concept of physical education	Challenge	3	.759
	Philosophy	3	.823
	Society	3	.768
	Biology	4	.786
	Pedagogy	4	.766
Total		31	

2.3 분석방법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답임교사 및 체육교사의 동의를 얻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 작성은 응답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 결과가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PC Ver 12.0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체육개념 및 목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신체상에 따른 체육개념 및 체육목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차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Scheffe의 사후검정(post-hoc)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별에 따른 체육목표와 체육개념

[표 3] 성별에 따른 체육과 교육목표 비교

Activity	Sex	N	M	SD	t
Health	Male	267	3.84	.842	4.793 ***
	Female	166	3.46	.745	
Challenge	Male	267	3.44	.838	8.079 ***
	Female	166	2.83	.707	
Competition	Male	267	3.36	.855	5.624 ***
	Female	166	2.87	.892	
Representati on	Male	267	3.20	.888	2.052 *
	Female	166	3.02	.829	
Leisure	Male	267	3.49	.840	5.047 ***
	Female	166	3.06	.877	

*p<.05, ***p<.001

표 3은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체육과 교육목표를 비교한 것으로, 체육과 교육목표에서는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여가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차이를 나타냈고 표현활동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차이가 나타났으며, 체육목표에 대한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탐구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건강활동에서 남자 3.84(±.842)로 여자 3.46(±.7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영역 중 가장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필요한 경기 수행 능력과 인지전략을 익히고, 팀워크, 리더십, 협동심, 스포츠맨십 등의 사회적 가치덕목을 기르는 경쟁활동에서는 남자 3.36(±.855)로 여자 2.87(±.8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고 여가 문화를 자기주도적인 계획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서 남자 3.49(±.840)가 여자 3.06(±.8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도전활동은 남자 3.44(±.838)로 여자 2.83(±.7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인식도는 표현활동으로 남자 3.20(±.888)로 여자 3.02(±.8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구분없이 중학생이 체육목표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건강활동, 경쟁활동, 여가활동, 도전활동, 표현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중학생의 체육개념을 분석한 것이다. 중학생의 체육개념에 대한 생물학적 수준 즉, 기관의 발달, 신경근의 발달, 이해력의 발달, 정서의 발달에 대한 생물학적 수준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가 나타났으며, 건강유지, 여가선용, 윤리적 성격발달에 대한 사회적 수준과 건강상태 조절, 습관 및 기능의 조절, 인식의 조절, 행동양식의 조절에 대한 교육학적 수준에서는 높은 평균점수가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체육개념 분석

Variable	Sex	N	M	SD	t
Philosophy	Male	267	3.35	.787	.370
	Female	166	3.32	.799	
Society	Male	267	3.77	.837	4.740***
	Female	166	3.39	.781	
Biology	Male	267	3.50	.740	7.143***
	Female	166	2.98	.734	
Pedagogy	Male	267	3.51	.787	4.325***
	Female	166	3.19	.711	

***p<.001

성별에 따른 체육개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철학적 수준의 체육개념에서 남학생의 평균(3.35) 여학생의 평균(3.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수준의 체육개념에서 남학생의 평균(3.77)이 여학생의 평균(3.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물학적 수준의 체육개념에서 남학생의 평균(3.50)이 여학생의 평균(2.9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학적 수준에서도 남학생의 평균(3.51)이 여학생의 평균(3.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체육개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철학적 수준을 제외하고 사회적 수준, 생물학적 수준, 교육학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3.2 신체상에 따른 체육과 교육목표와 체육개념

표 5는 중학생의 신체상에 따른 체육과 교육목표를 분석한 것이다. 체육과 교육목표의 건강활동 영역에서 정상의 학생(4.26)이 다른 신체상의 학생에 비해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활동 영역에서 정상의 학생 평균(3.59)이 다른 신체상의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쟁활동 영역에서도 정상의 학생 평균(3.52)이 다른 신체상의 학생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표현활동 영역에서도 정상의 학생 평균(3.5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 영역에서도 정상의 학생 평균이 3.57로 매우마름(3.27), 약간마름(3.45), 비만(3.30)의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중학생의 신체상에 따른 체육과교육목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도전활동(p<.01), 경쟁활동(p<.001), 표현활동(p<.05)과 여가활동(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 Scheffe의 사후검정(post-hoc)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신체상에 따른 체육과 교육목표 분석

Variable	Somatotype	N	M	SD	F	post-hoc
Health	Very thin(a)	81	3.61	.861	1.886	n.s
	Thin(b)	161	3.69	.810		
	Normal(c)	14	4.26	.718		
	Obese(d)	126	3.68	.768		
	Very obese(e)	51	3.72	.944		
Challenge	Very thin(a)	81	3.08	.768	4.364**	e<a,d<b,c
	Thin(b)	161	3.36	.817		
	Normal(c)	14	3.59	.869		
	Obese(d)	126	3.15	.860		
	Very obese(e)	51	2.92	.883		
Competition	Very thin(a)	81	3.08	.916	4.646**	e<a<b,c,*
	Thin(b)	161	3.33	.827		
	Normal(c)	14	3.52	.874		
	Obese(d)	126	3.15	.856		
	Very obese(e)	51	2.78	1.07		
Representation	Very thin(a)	81	3.17	.789	2.554*	d,e<a,b,c
	Thin(b)	161	3.23	.838		
	Normal(c)	14	3.52	.958		
	Obese(d)	126	3.02	.951		
	Very obese(e)	51	2.92	.796		
Leisure	Very thin(a)	81	3.27	.843	2.669*	e<a,b,c,d
	Thin(b)	161	3.45	.793		
	Normal(c)	14	3.57	.861		
	Obese(d)	126	3.30	.926		
	Very obese(e)	51	3.03	1.01		

*p<.05, **p<.01, ***p<.001, ns : not significant

[표 6] 신체상에 따른 체육개념 비교

Variable	Somatotype	N	M	SD	F	post-hoc
Philosophy	Very thin(a)	81	3.19	.765	1.785	n.s
	Thin(b)	161	3.41	.760		
	Normal(c)	14	3.52	.534		
	Obese(d)	126	3.28	.817		
	Very obese(e)	51	3.48	.887		
Society	Very thin(a)	81	3.43	.964	2.491*	a,e<b,c,d
	Thin(b)	161	3.73	.767		
	Normal(c)	14	3.92	.706		
	Obese(d)	126	3.62	.775		
	Very obese(e)	51	3.51	.945		
Biology	Very thin(a)	81	3.20	.874	1.906	n.s
	Thin(b)	161	3.36	.756		
	Normal(c)	14	3.73	.668		
	Obese(d)	126	3.29	.701		
	Very obese(e)	51	3.20	.873		
Pedagogy	Very thin(a)	81	3.38	.720	1.173	n.s
	Thin(b)	161	3.41	.765		
	Normal(c)	14	3.67	.768		
	Obese(d)	126	3.40	.808		
	Very obese(e)	51	3.21	.790		

*p<.05, ns : not significant

표 6은 중학생의 신체상에 따른 체육개념을 비교한 것이다. 체육개념의 철학적 수준에서 정상의 학생 평균(3.52)이 매우마른 체형(3.19)이나 매우비만 체형(3.48)의 학생보다 높았으며, 사회적 수준에서 정상의 학생 평균(3.92)이 다른 신체상의 학생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물학적 수준에서 정상 체형의 학생 평균이 3.73, 약간마른형의 평균이 3.36, 비만형의 학생 평균이 3.29로 정상형의 학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적 수준에서 정상형의 학생 평균(3.67)이 다른 신체상의 학생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신체상에 따른 체육개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철학적 수준, 생물학적 수준, 교육학적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사회학적 수준에 대한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매우 마른형(3.43±.964)과 매우 비만인형(3.51±.945)이 가장 낮은 체육에 대한 사회적 개념 수준을 보였으며, 약간 마른형(3.73±.767)과 약간 비만형(3.62±.775), 정상형(3.92±.706)의 학생에게서 높은 사회적 체육개념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별과 신체상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체육개념 및 체육목표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체육목표와 체육개념의 비교분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든 목표영역에서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다. 즉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체육목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체육개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철학적 수준을 제외한, 사회적, 생물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목표 인지도를 분석한 채한승, 이종호, 윤영국[18]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목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체육목표 인식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이병관[15]의 연구에서는 체육목표에 대한 인지도 분석에서 남자는 심동적 영역에서 여자는 정적 영역에서 중요하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여 부분적인 결과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윤희[61]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여학생(46.1)이 남학생(43.1)보다 건강과 체력에서 높은 체육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반

된 결과를 보였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개념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지만 연구대상자의 배경인 연령, 지역, 시대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체육개념의 이해가 높아 성별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육, 운동, 스포츠부문에 성별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관련 연구 결과가 많이 존재한다. 특히, 체육교과목의 선호도 및 인식도, 체육수업의 참여도, 스포츠 참여 유형 등의 분석에서도 성별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23,261],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접근은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체육, 운동, 스포츠가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기의 중학생에게서 체육개념과 체육목표의 이해 부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체육과 교육목표와 개념을 여학생에게 경험과 문화 재생산, 그리고 교육내용으로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상에 따른 체육목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활동 영역을 제외한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에서 정상체형에 속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상에 따른 체육개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수준에서만 정상체형에 속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학적 수준, 생물학적 수준, 교육학적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신체상에 비해 정상형의 학생이 체육개념에 대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목표는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10]. 체육과 교육목표의 제시에 따라 교육내용은 상이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것은 교육방법과 평가에도 영향을 제공한다. 따라서 체육교과목의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가 체계성과 일치성을 제공해야만 학생이 진술한 체육과 교육목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체형에 따른 체육목표를 분석한 결과로서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에 대해서 매우 비만인 학생보다 정상인 학생이 체육 목표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들의 신체관리를 통한 체형이 유지되어야 올바른 신체상이 수립되어 결과적으로는 진술한 체육과 교육목표의 세부영역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어 체육수업과 건강한 신체상에 대한 정립이 바르게 잡힐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체육의 개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수준에 대해서 매우 마르거나 매우 비만인 학생들에 비해 정상인 체형의 학생들이 더 높은 사회적인 수준의 체육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체육 개념을 올바르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철학적, 사회적 수준에서의 건강한 신체상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으로 정상 체형을 형성토록 하는 수업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체육교과 목표를 중학생이 인식한 목표와 비교하면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체육목표와 개념이 명확히 제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의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체육수업에서의 실기와 이론의 교육내용, 이를 전개하는 교육방법과 평가가 진술된 교육목표와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데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통해 체육과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운동, 신체활동, 스포츠를 통해 표현, 도전, 건강, 여가, 경쟁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활용 등의 체육목표를 자연스럽게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수업전개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에서 야기되는 의미와 방향성을 경험하는 과정[19]으로 규정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중학생의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목표와 개념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결과를 탐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과정 개선에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즉, 중학생이 체육수업을 통해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념과 목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이 제공하는 교과목으로서의 내용으로서 중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계획된 신체활동의 포괄적인 개념의 범위와 계열, 체육교과에 대한 해석, 교수방법 등의 계획된 수업진행이 필요하다. 즉,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숙달되어야 할 일련의 과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활동 영역의 목표를 체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수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별과 신체상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체육 개념과 체육목표의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에게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미가 크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학생의 체육 개념과 체육과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정상형의 중학생이 매우마른, 마른, 매우비만, 비만 등의 체형에 비해 체육개념과 체육과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와 같이 체육개념과 체육과 교육목표의 인식수준에서도 성별 간에 의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을 이해하고, 여학생에게도 체육개념과 체육과 교육목표를 경험으로서, 문화 재생산으로서, 그리고 교육내용으로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매우마른, 마른, 매우비만, 비만형에 비해 정상형의 학생이 체육 개념과 체육과 교육목표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올바른 신체상과 건강한 체형을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중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계획된 신체활동의 포괄적인 개념의 범위와 계열, 체육교과에 대한 해석, 교수 방법 등의 계획된 체육수업의 진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해설*. 서울 : 한울사, 2008.

[2] 권옥동, 김영환, 김창우, 박창희, 노은이, *체육목표 순위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 무용철학회지, 7(2), 181-201, 1999.

[3] 권희기, 서비스 기업의 변혁적 리더십, 일몰입과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간의 관계,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2, No. 1(B), 437-451, 2010.

[4] 김상태, *중등학교 체육목표 순위설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5] 김용, *현대체육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1994.

[6] 김윤희, *체육교과 목표에 관한 학생의 인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2), 39-53, 2003.

[7] 김재복,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 -제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6.

[8] 김창권, 김동규, *중국 학교체육 목표의 변천과정과 전망*, 한국체육학회지, 39(1), 89-96, 2000.

[9] 박민수, *제7차 교육과정의 체육목표 순위설정과 적용*.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6.

[10] 박범석, 이찬주, *교육목표로서 표현 개념의 교육과정적 해석*. 교육과정연구, 24(1), 41-60, 2006.

[11] 배영훈, *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지속유형이 운동중독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1, No. 5, 2785-2794, 2009.

[12] 손인석, 이인경, *일반체육목표와 특수체육목표 인식에 관한 문헌고찰*. 특수체육연구, 4호, 67-81, 2007.

[13] 양한나, *일반학교 중등체육교사의 특수체육 목표인식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5(5), 273-280, 2006.

[14] 이광섭, 안용규, *체육목표를 통한 체육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중학교 체육과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20, 37-53, 1997.

[15] 이병관, *체육목표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도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4(6), 901-912, 2003.

[16] 이영미, *아동의 체형지각과 신체상 지각에 따른 부정적 정서*. 대한가정의학회지, 42(8), 133-145, 2004.

[17] 정동섭, *감정노동이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1, No. 6(B), 3221-3234, 2009.

[18] 채한승, 이종호, 윤영국, *남녀 고등학생의 체육목표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21(2), 203-221, 2002.

[19] 최성욱, *교육과정 개념화의 대안적 접근*. 교육학연구, 33(5), 193-216, 1995.

[20] Bhuiyan, A. R. Gustat, S. R., Srinivasan, & Berenson, G. S., *Differences in body shape representations among young adults from a biracial (black-white). semirural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8, 792-797, 2003.

[21] Bookwalter, K. W., *Physical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s*. Washington, D, C.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1964.

[22] Cattarin, J. A., Thompson, J. K. Thomas, C., & Williams, R., *Body image, mood, and televised images of attractiveness: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20-239, 2000.

[23] Cho, M. H., *The strength of motivation and physical activity level during leisure time among youth in South Korea*. *Journal of Youth and Society*, 35(4), 480-494, 2004.

[24] Groesz, L., Levine, M. P., & Murnen, S. K.,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1-16, 2002.

[25] Levine, M. P. & Piran, N., *The role of body image in the prevention of eating disorders*. *Body Imag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1 57-70, 2004.

[26] Nam, J. W., Cho, M. H., & Goo, K. B., *The perceived constraints, motivation, and physical activity levels of South Korean youth*. *South African Journal for Research in Sport,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31(1), 37-48, 2009.

[27]Stunkard, A. J., Sorenson, T., & Schlusinger, F., Use of the Danish adoption registers for the study of obesity and thinness. In s. S. Kety, L. P. Rowland, R. L. Sidman, & S. W. Matthyse (Eds.), The genetics of neurological and psychological disorders (pp. 115-120). New York: Raven Press, 1983.

이 정 흔(Jeong-Heun Lee)

[정회원]



- 1984년 8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06년 2월 : 대전대학교 경영학 박사
- 2010년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스포츠산업, 스포츠마케팅, 육상

이 동 진(Dong-Jin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 석사
- 2009년 2월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2010년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운동역학, 테니스

서 재 하(Jae-Ha Seo)

[정회원]



- 1996년 8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 석사
- 2005년 8월 : 경북대학교 이학박사
- 2010년 ~ 현재 : 대전관저고등학교 교사

<관심분야>

체육행정, 테니스

이 문 숙(Moon-Sook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 석사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1999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치료레크리에이션)

오 병 돈(Byoung-Don Oh)

[정회원]



- 2002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 석사
- 2008년 8월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2010년 ~ 현재 : 공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조교

<관심분야>

스포츠사회학, 축구

조 민 행(Min-Haeng Cho)

[정회원]



- 1996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00년 5월 : 뉴멕시코주립대학 체육학박사
- 2010년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여가레크리에이션, 테니스

조 병 준(Byung-Jun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석사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2010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응급구조학 및 의학